

1. 모임명

경제분석을 위한 기초 계량경제학1

2. 모임의 목적과 진행배경

흔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1회 노벨경제학상은 계량경제학에 공헌했던 두 계량경제학자 Frisch와 Tinbergen이 수상하였고 그 밖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량경제학에 대한 공헌으로 이 상을 수상하였다. 계량경제학은 경제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 그리고 이점은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조차도 꺼려하기도 한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계량경제학은 생소하거나 어렵고 낯설다. 혹은 또한 계량경제학을 직접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은 실제로 단순한 편견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절반만 맞다.

- 이는 첫째로 흔히 계량경제학은 학과 내에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분석을 위한 계량경제학'은 단순히 이론을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병행할 것이다.
- 둘째로 '경제분석을 위한 계량경제학'은 함께 모여 공부하며 자유롭게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흔히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계량경제학은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실습은 이따금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주어진다. 또한 학교 밖에서 공부하게 될 경우 혼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곤란함이 있다. 그러나 이 모임에서는 통계를 다루면서 발행하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공부하며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셋째로 흔히 사람들은 데이터분석은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직접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량경제학을 습득하면 그동안 신문에 나온 결과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자료를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흔히 사람들은 계량경제학이 경제학 분야 외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거나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도 참은 아니다. 계량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과이지만, 통계적 방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모든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3. 진행내용

'경제분석을 위한 계량경제학' 모임에서는 계량경제학의 기초적 이해를 위한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특히 이론적으로는 선형회귀모형을 중심으로 경제적 요인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 통계적 검정결과를 해석하는 이론적 내용들을 다룬다. 또한 통계패키지 STATA를 이용하여 경제데이터를 다루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다룬다. 이에 따

라 계량경제학의 이론적 내용과 함께 실습을 병행할 것이다.

1. 2017.01.16. – Chapter 01 프롤로그: 먹고살자, Chapter 02 자, 나를 읽어봐, Chapter 03 자료, 너 누구냐?, Chapter 04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Chapter 16 젊은 날의 肖像
2. 2017.01.23. – Chapter 05 너에게 돌아가는: 회귀분석(OLS)
3. 2017.02.06. – Chapter 06 나는 시계열이다
4. 2017.02.13. – Chapter 07 도구변수가 살길이다
5. 2017.02.20. – Chapter 08 이산을 점령해라: Part I
6. 2017.02.27. – Chapter 09 이산을 점령해야: Part II
7. 2017.03.06. – Chapter 10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8. 2017.03.13. – Chapter 11 살아남은 자의 슬픔
9. 2017.03.20. – Chapter 13 부채도사
10. 2017.03.27. – Chapter 14 오늘과 다른 내일
11. 2017.04.03. – Chapter 15 바, 벡, 그리고 아치 (1)
12. 2017.04.10. – Chapter 15 바, 벡, 그리고 아치 (2)